

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덕로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19일(수) 제 3038호



전북도-지역대학 총장 간담회

18일 도청에서 열린 제2회 전북 라이즈(RISE)위원회 후 이어진 도-지역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대학 총장들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전북도>

자립재단, 장애인 복합타운으로 재탄생

자립복지재단 청산…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 본격 조성
장애인 자립·고용·교육·일자리 지원에 4개 핵심 사업 추진
2027년까지 국·지방비 9백억 투입, 장애인 복지의 새 전환점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구)자립복지재단의 공식 청산을 완료하고 해당 부지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 성덕동에 위치한 이 재단은 2015년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인 '자립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이후 법적 분쟁과 소송을 거쳐 2018년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청산 완료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도는 재단부지에 국비·지방비 포함 약 9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북교육청·전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해 장애인 자립과 복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센터로, 총 67억원이 투입됐다. 개소 이후 1천5명의 장애인이 운동재활, 인지·심리안정, 의사소통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자립생활 체험 및 일상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체험홈에는 113명이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장애인 고용교육연수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7년 개원 예정)은 총 291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재활기금을 활용해 설립되며, 장애인과 고용주를 위한 전문 교육·연수 공간을 갖춘다. 2025년 상반기 설계 공모를 진행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중점 특

수학교(전북교육청, 2027년 개교 예정)는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380억원을 투입해 18개 학급을 운영하는 직업 중심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전주시, 2027년 개원 예정)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기업 연계를 위한 종합 시설로, 총 157억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도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 타운 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 조성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자치도·대학, 지역발전 위한 협력 강화 ‘한목소리’

전북 RISE 위원회,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 열어
전북라이즈위원회 개최, 올해 시행계획 심의·의결
대학 경쟁력 강화 840억원 규모 라이즈 공모 추진

전북자치도가 대학과 함께 지역 및 지역 대학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시행계획을 의결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도는 18일 올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시행계획 심의·의결을 위한 전북자치도 라이즈 위원회와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는 라이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25년도 라이즈의 구체적실행을 위한 재정투자 및 공모계획 등이 담긴 라이즈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북 라이즈센터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840억원 규모의 라이즈 공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부 중점사업이다.

도는 라이즈를 통해 지역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은 대학이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라이즈 위원회 후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대학 총장 간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앞선 라이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라이즈 시행계획이 공유됐으며 2025년도 글로벌대학30 공모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23년 전북대, 24년 원광대에 이어, 올해 또 하나의 글로벌대학 선정이 되도록 차별화된 혁신안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선정 방향에 대응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재정투자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합형 대학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 지정 속도 낸다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 상반기 내 지정
남원 ECO스마트팜·진안 홍삼항방·고창 김치특화지구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 반영

전북자치도가 지난 연말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전북이 강점을 지닌 농생명산업 분야를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될 예정인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60.1ha) ▲진안 홍삼항방산업지구(7.3ha)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8ha) 등 3개소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전북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조성되며 진안 홍삼항방산업지구는 국내 유일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홍삼 산업의 시설

집적화 단지로 육성된다. 또한,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김치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기본계획 및 지구 실행계획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했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18일

부터 20일간 도청 및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공람 및 주민설명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고, 실시단계 단계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지속가능한 산업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가 단순한 농업단지를 넘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업혁신 모델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라며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도의회경산건위,도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계획청취

김이재 도의원, “공모사업 20개 줄고, 청년일자리사업비 400억에서 100억 감소” 지적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17일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일본 도쿄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해외교류와 통상업무가 나뉘어 있어 외국인정책과와 기업애로해소와 간의 업무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반기 내 업무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

▲김동구 의원(군산2)=경제통상진흥원의 예산 중 지난해까지는 편성되지 않았던 중국사무소 주택수당이 올해 새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

경진원의 예산 속지가 부족하니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달라.



김대중 위원장



김동구 도의원



김만기 도의원



김이재 도의원



나인권 도의원



서난이 도의원



이병도 도의원

▲김만기 의원(고창2)=농공단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경진원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 조치해야 한다.

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국가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 전북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나인권 의원(김제1)=작년 중국사무소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중국사무소에 부서장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고 향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사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생각하는 근로환경 개선은 기업문화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리모델링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이기에 청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병도 의원(전주1)=전주 가맥축제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축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진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김관 기자



전북자치도, 3.1절 맞아 이석규 애국지사 위문

도내 유일 생존 애국지사 찾아 격려금·위문품 전달

전북자치도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18일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99) 지사를 찾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국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장 등이 함께했으며 애국지사에 대한 경의를 담아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도내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학우들과 독서회를 조직해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체포돼 옥고

를 치른 바 있다.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표창이 서훈됐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전북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되는 호국보훈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축산연구소, 도내 축산농가 대상 맞춤형 실습 교육 확대

축산농가 및 청년 축산인 300명 대상, 현장실습교육·축산현장기술교육 등 10개 과정 교육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소장 이해이)는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맞춤형 기술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300명의 축산농가 및 청년 축산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축산농가전문교육 ▲청년축산인육성교육 ▲현장실습교육(WPL) ▲축산현장기술교육 등 총 10개 과정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 한우·젖소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염소 사양관리’ 과정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축산기술 보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축산기술 전문교육은 최근 3년간 900여 명이 수료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생축을 활용한 인공수정 실습

교육은 한우 번식 생리에 대한 이론 교육과 정액주입 요령을 실습해 농가가 직접 인공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돼 교육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축산기술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현장실습교육(WPL)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수당 10~20명의 소수정예 인원으로 운영되며 축산농가는 거주지 시군 축산 관련 부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실무 중심의 축산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소장 이해이)는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맞춤형 기술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영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고 고 밝혔다. 교육 품질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

/김은지 기자

정중복 도의원, 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중복 의원(전주3)이 18일 도내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기술 보급과 활용이 확산하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도내 인공지능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전북도 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도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김슬지 도의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슬지 도의원

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부안군, 진안군, 순창군 등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의 해법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설립이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되는 추세다”며 “전북의 경우 공공에서 운영 중인 놀이시설이 특히나 부족한 만큼 최근의 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현재 전북도는 어린

이장의체험관 등 13개의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 중인데 보육복지의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농업부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윤준병 의원, 교원 적격성 심사 강화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은 18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할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향교육공무원심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30 Km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자 수칙

스쿨존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기

안전거리 준수하기

스쿨존에 주.정차 하지않기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본격 가동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 개최…피해자 보호·사기 예방 총력, 주거비·이사비 지원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등 확대 지원, 피해 최소화 위한 협력 강화…분기별 회의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

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해 나설 계획이다.

/김관 기자



전주상의, 전북공급망 ESG 지원센터 현판식

ESG컨설팅·교육·설명회 등 ESG규제 지역기업 대응력 지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18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에서 전주상의 회장단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공급망 ESG 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을 계기로 전주상의 ‘전북공급망 ESG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ESG를 규범화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치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도 환경, 노동인권, 준법

경영 등 ESG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탄소배출이나 유해물질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

과 노동, 준법경영 등 EU공급망 실사법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

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역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주상공회의소 ‘전북공급망 ESG 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ESG 대응 교육·설명회 등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최근 경영환경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이슈에 잘 대비하고 공급망 ESG 실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센터를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23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권역별 지원센터로 지정돼 지난해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교육과 설명회는 물론 15개사를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컨설팅과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교육과 진단평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첨단전략기업 환경·안전·보건분야 1:1 밀착 진단

이차전자·화학물질 등 취급 사업장 사고 예방 컨설팅…업별 컨설팅, 시설개선, 인력양성 교육 등 지원

전북자치도는 이차전자·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및 화학물질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도내 첨단전략산업 투자 증가 및 기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 네트워크와 기업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사)전북산학융합원과

협력해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컨설팅 분야) 기업별 화학물질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후 대응방안 제시 ▲(시설개선 분야) 안전설비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인력양성 분야) 법정 의무교육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범 도입됐으며 50개 기업 대상 기초진단·심화 컨설팅, 11개 기업 대상 환경·안전 시설개선, 50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해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컨설팅 및 지원 만족도 우수 100%, 차년도 사업 참여 희망률 100%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사업수행 기간이 짧고 시설개선 보조금이 낮아 기업들이 아쉬움을 표했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 지원 내용을 보완했다. 올해는 컨설팅 3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전문인력 30명 양성을 목표로 더욱 심층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컨설팅 지원 분야를 기업 특성에 맞춰 ‘화학안전’과 ‘환경기술’로 이원화하고, 시설개선비 지원 단가

를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 수료 인증과 연계한 전문교육을 운영해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도내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종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2월 말부터 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의 환경·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5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예비·창업기업 1,200여개 선발…창업지원 프로그램·최대 6천만원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웅, 전북중기청)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오는 24일부터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4일부터 3월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절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4월 말부터 창업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술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각각 60여 명씩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천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천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선배기업 멘토링을 확대해 선배기업들의 사업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가능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예비창업패키지 내 특화 분야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공기관 등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하 운영기업)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사내벤처

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공개 모집한다.

특히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내벤처팀 선정 이후에 운영기업 요건을 확인하는 등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천만원)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IR을 개최해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필리핀 기초단체장 47명, 한국 스마트도시·공공행정 혁신 배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필리핀 타기그시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역량강화 연수 진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자치인재원)은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 부시장 및 기초단체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

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 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전문가 맞춤형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 단위의 스마트도시·행정혁신 우수사례인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하고, 문화자원을 관광지로 활용해 경제 활성화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안준호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연수는 지난해 10월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를 도모한 전주와 서울의 명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 선언 이후,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AI가 전하는 정읍 소식’ 매주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정읍시가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TV 뉴스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시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최초로 매주 유튜브를 통해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정읍 소식’ 영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 영상은 매주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는데, 촬영부터 대본 작성, 편집까지 시민소통실 공보팀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텍스트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영상 콘텐츠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청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시청 소식을 전달하고자 AI 아나운서 뉴스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향후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긴급 재난 정보, 정책 안내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과 주민들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설보수 사업인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보수 지원’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이 눈에 띈다. 7개 단지에 단지당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보수의 경우, 1개 단지에 8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다만, 두 분야 모두 보조금의 30% 이상의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기업과 청년을 잇다

익산시가 올해 첫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 청년들과 지역 기업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8일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익산청년시청에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2023년부터 익산시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해 왔으며, 지역 내 대표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인·구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우진글로벌, 순수번, 하림산업 등 지역 우수기업 10곳이 참여했으며, 구직자들이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했다.

이날 취업박람회는 1:1 현장 면접을 비롯해 ▲면접비 지원 ▲퍼스널 컬러 진단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전북권 광역전철망 추진

새만금강항선·서해선 ~ 정읍 ~ 논산 철도망 연계… 사업 기간 10년 이상 예상

익산시가 전북권 광역전철(철도)망 구축을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지난 18일 비수도권 최초로 개통된 대구~경북 광역철도(대경선)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하며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현율 시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동대구역에서 대구시 철도시설과 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대구역~경산역 구간을 직접 시승하며 광역철도의 장점을 체감했다.

대경선은 기존 경부선 선로의 유휴 용량을 활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지난해 12월 개통 후 하루 최대 100회 운행되고 있다. 승차권 예매 없이 교통카드로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으며, 시간당 3회 이상 운행해 배차 간격이 짧아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정현율 익산시장이 지난 18일 경산역에 방문하여 교통카드를 찍는 모습이다

특징이다.

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보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의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동서축(새만금항선·서해선)과 남북축(정읍~논산) 철도망을 연계해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철도 인프라 구축은 10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

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권 광역전철 사업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관건이다.

정현율 시장은 “전북권 광역전철이 구축되면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철도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42억 3,800만 원 예산 투입

군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먼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운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

스 5등급 경유 자동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5kw~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포함)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조기 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제한 없이 신청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지원율 100% 상향, 신차 구입 시에 추가 50% 지원(중고 구입 제외)한다는 점이다.

1차 신청은 오는 24일(월)부터 내달 7

일(금)까지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www.mecar.or.kr) 또는 방문 접수(시청 2층 대강당), 등기우편(군산시청 기후환경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환경과 대기환경계(064-454-4462~5)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는 올해 4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 폐차 1,06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5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025년 인구정책 통합안내서’ 발간

“각종 인구정책 사업 정보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제작”

정읍시가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5년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정읍시와 함께,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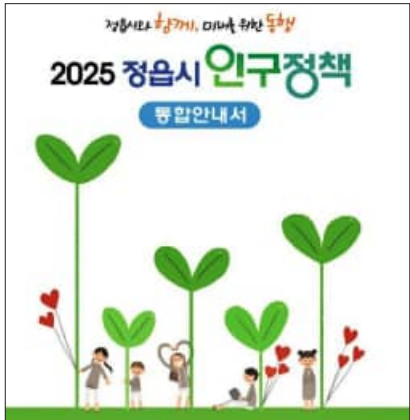
출산·양육, 교육, 귀농·귀촌, 청년·일자리, 외국인 지원(신규), 기타 지원 등 6개 분야 99개 사업이 담겼으며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7개 주요 사업도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된 주요 사업으로는 ▲한방 난임부부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

원금 지원 ▲외국인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운영 ▲출산·임양 가정 쓰레기 봉투 지급 ▲육아수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한도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신혼부부까지 확대 등이 있다.

시는 시민들이 쉽게 안내서를 접할 수 있도록 실·과·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인구정책)에서 전자책(E-book)과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각종 인구정책 사업



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악취 없는 정읍” 프로젝트 가동

탈취탑·밀폐화·미생물체 활용 등 9개 악취 저감사업 추진

정읍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3스페셜(Stink-Stop-Sam샘비 정읍) 슬로건 아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과 강력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악취 저감사업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과 최근 5년 이내 도비보조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사에서 제외된다.

올해 시는 자부담을 포함해 총 4

억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탈취탑·밀폐화·미생물체 활용 등 9개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3월 중 공고문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악취 배출시설 개선 지원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처분까지 고려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악취대응반 2명을 충원하고, 실시간 감시와 단속 강화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4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악취 민원 대응, 저감사업 관리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금상터널 보수공사 교통통제 협조 요청

이달 17일~22일 터널 내부 상·하행 2차로씩 부분 통제

군산시는 제일고~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경기장로에 위치한 금상터널의 파손부분의 안전 보수를 위해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작된 공사는 오는 6월 까지 지속되며, 예산은 약 7억 원이다.

시는 작년 4월경 금상터널 남측 갭문 상단에서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 등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정밀 안전 진단용역을 거친 뒤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터널 상부의 배수 지장과 누수로 발생한 콘크리트 파손 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복구와 배수로 개선 및 배수 처리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를 위해 터널 상부 슬래브 일부의 철거 및 보강에 따른 낙하물 유실 방지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는 터널 내부 상·하행 2차로씩 부분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



치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의 통행 불편 초래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보수보강공사 기간 내에는 가시설 철물 지장 등에 따라 터널 내부에서의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시는 철저한 안전 시공과 함께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 하계올림픽 챌린지 동참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이 지난 18일 2036 하계 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유치 기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경진 의장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경진 의장은 챌린지를 이어



갈 다음 참여자로 농협 익산시지부 진현욱 지부장을 지목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기차 타고 깨끗한 정읍 만들자… 보조금 지원

36억 원 예산 투입… 승용차 150대·화물차 100대·승합차 2대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전기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총 36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252대를 보급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 목표는 ▲전기 승용차 150대 ▲전기 화물차 100대 ▲전기 승합차 2대다. 승용차는 최대 12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정읍시에 연속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과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이다. 차량 구매를 원하는 시민과 기업은 전기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

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생애 첫 자동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도비 지원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과 무궁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군산콘텐츠팩토리 신규 입주기업 모집

캐릭터·웹툰·영상·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창업 5년 이내 기업 4개소 모집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로 모집 대상은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한 후 콘텐츠팩토리(해마로146-24)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rca8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 시기는 오는 4월 1일이며 최초 입주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군산시 소재 기업은 선발 시 가점이 있으며 관외 지역 기업은 입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콘텐츠팩토리

로 분사 이전 및 지사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회의실 및 편집실 등 공유공간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063-454-581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 주요 역점사업 교도소 신축 ‘순항’

지난해 7월 설계용역 착수…’26년 토지보상 절차 돌입, ’27년 착공 예정
화정동 일원 15만㎡ 수용자 500명 규모로 조성…2031년 준공 목표

남원시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원교도소는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 150,660㎡ 부지에 연면적 21,185㎡, 수용자 500명, 상주직원 200명의 규모로 조성된다.

법무부는 총사업비 723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 7월 남원교도소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해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다.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기본·실시설계 각 270일)이며, 내년 말 설계가 완료되면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가 마무리되는 2026년에 한국부동산원과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토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및



남원시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남원교도소 부지.

지역소비 증대 등을 통해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020년 교정시설 후보지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교도소 유치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21년 6월 교도소 설립이 최종 확정됐고, 2021년 8월 법무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원교도소 신축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돼 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올해 34억 투입 전기차 258대 지원한다

상반기 135대 예정… 승용차 최대 1,240만 원 등 차종별 차등 지원

완주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총사업비 34억 9,3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58대(승용 158대, 화물 100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135대(승용 80대, 화물 55대)를 지원한다. 하반기 사업은 추경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승용은 최대 1,240만 원, 화물은 최대 2,583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완주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단체(중앙행정기관 제

외)다.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전기차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대가질 개선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여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

최영일 군수 “노인일자리, 소득 보전 넘어 지역사회 기여·활동 영역 확대”

순창시니어클럽이 지역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교육은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8일까지 순창군 내 각 읍·면 체육관 등에서 진행되며, 약 3,249명의 어르신 참여할 예정이다.

순창시니어클럽(관장 이호)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근무 중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수칙, 응급상황 대처법,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분석과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군은 노인일자리 3,380개를 운

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81개에서 2,099개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는 980개로, 전북 내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수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노인일자리 시니어자원순환단이 폐폐트병 59만 7천여개를 수거해 관련 수익금 약 331만 원을 전액 군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교육장을 방문한 최영일 군수는 “지금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 소득보전이 아닌 시간활용이 가능한 군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순창군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순창군은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통보조기기 및 보행보조기 지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첫 시행된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지원되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향토사 디지털화 증보 협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토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디지털남원문화대전’ 구축 17년을 맞아 새롭게 정비 추진한다.

남원시는 18일 문화유산,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남원문화대전’ 수정 증보 연구사업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김낙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 한국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

문화전자대전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남원문화대전은 지난 2007년 말 구축한 지역 백과사전으로, 지역의 다양한 향토 문화자료를 수집, 연구, 분석해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했다.

현재 텍스트 콘텐츠 2,000항목, 멀티미디어 사진 2,399건, 동영상 54건 등 방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현재 시점에서 그간 변화상과 발전상을 반영한 신규 항목을 추가(원고 1,000매)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진 400건, 동영상 1편)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의 문화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 백과사전을 수정 증보 연구해, 남원의 역사·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확대

8종→10종 늘려…농가당 1품목씩 50만원 이내 지원

완주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노동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여성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가 포함된다.

지난해 8종에서 올해는 총 10종의 장비로 늘렸다. 지원 품목으로

는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자동파종기 ▲충전식자동정경기 ▲소형관리기 ▲충전식전기톱 ▲잡초제거기다.

새롭게 추가된 장비는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됐다.

농가당 1품목씩 50만 원 이내(자부담 20%)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290-3216)으로 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청소년수련관, '나만의 수소 굿즈 창작소' 운영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이 '나만의 수소(H2) 굿즈 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를 견학한 청소년들은 오는 21일까지 자신만의 수소 캐릭터를 만들어 슈링크즈(투명한 필름지) 굿즈를 완성한다.

참여 청소년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도시 캐릭터를 만들며 수소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과정을 갖는다.

서급관 교육정책과장은 “완주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수소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지역 행사 지원 방안 등 논의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일 군수와 정명자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의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군청 주요 사업과 군민의 날 행사, 봄나물 축제, 순창장류축제 등 지역 주요 행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해 여성단체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여성 권익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도 여성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47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해빙기 하수도시설 지반약화 사고 예방 안전 점검

순창군이 해빙기를 맞아 하수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이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장 1개소 ▲신촌, 윤암, 원촌, 구곡, 건곡 5개 지구의 공사 현장 등 총 6개소다.

공사 감독, 관리대행업체, 감리단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점검 기간동안 ▲해빙기 대비 하수도 시설물 안전상태 확인 ▲공사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상연락망과 긴급복구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 하수도 시설물의 균열, 붕괴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춘향제, 밴드 경연대회 ‘풍ROCK을 울려라’ 개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가 ‘춘향의 소리, 세계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취지에 맞게 우리 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밴드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열린다.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기간, 전국의 다양한 밴드음악 팀들을 모집해 경연을 통해 락(메탈)·펑크와 같이 강렬하고 경쾌한 음악, 블루스·재즈와 같이 부드러운 음악들을 조화롭게 혼합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공연 문화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호남 유일 4D폴돌영상관 재운영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는 2층 천체투영관 리노베이션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18일부터 4D폴돌영상관을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10월 9일 개관 후 노후화된 천체투영관 시설물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과의 협업을 진행했다.

리뉴얼 작업을 마친 천체투영관은 직경 10m 크기의 360도 폴돌스크린을 배경으로 사진 같은 4K급 영상과 모션 체어 시스템을 갖춘 4D폴돌영상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남



원항공우주천문대는 호남권 유일한 4K폴돌 4D시스템을 보유한 지역거점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관람객들은 영상 관람과 함께 실감난 4D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초등학생 대상 눈높이 치매파트너 교육

완주군 치매안심센터가 관내 지역 아동센터 5개소 초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용진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치매 관련 그림책을 활용해 어린이 눈높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한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단계별로 그림책을 선정해 아이들이 치매를 보다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군은 개인, 학교, 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를 찾아다니며 치매파트너 교육 확대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그림책을 활용한 눈높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치매를 친근하게 받아들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재)진안홍삼연구소, 식품전문 인력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재)진안홍삼연구소(이하 홍삼연구소, 소장 현동운)는 2025년 식품전문인력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본 교육은 진안군 홍삼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인력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안군 홍삼 및 식품가공기업 관계자, 창업예정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교육은 내달 6일부터 시작해 4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홍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HACCP 정과정 ▲HACCP 자체평가 ▲상품화 및 마케팅 전략 ▲6차산업 성공전략 ▲위생관리 및 모니터링 ▲일반 미생물 실험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5일까지로, 홍삼연구소 및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및 팩스 또는 홍삼연구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홍삼연구소 현동운 소장은 “진안군 홍삼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본 교육을 통해 기업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해 진안군 홍삼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경로당 순회 감염병 질환 예방 교육 실시

진안군이 관내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경로당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역력이 약한 감염 취약 계층으로 장관감염증, 호흡기감염증 등 감염병 감염 시 폐렴,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50여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감염병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기침 예절(옷소매이용), 환기하기 등 예방수칙을 중점을 뒀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진안을 경로당(상가막 외 4개소)으로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및 교육을 실시해 감염병 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라영현 보건행정과장은 “손씻기와 기침예절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으로 어르신들이 실천을 생활화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천천면, 전 직원 대상 친절 다짐 교육 실시

장수군 천천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 다짐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인의 요구에 대비해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의 중요성, 친절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 민원인을 배려하는 언어사용 등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친절한 인사는 기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걸음인 만큼 직원간에 짝을 이뤄 ▲민원 응대 물플레이 ▲전화 응대 시물레이션 ▲목소리 톤과 말투 훈련 등에 대해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원 면장은 “한마디의 인사로 소통이 시작되고 신뢰가 쌓인다”며 “더 친절하고 인사 잘하는 천천면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여행 숙박비 할인 지원사업’ 시작

숙박일 7일 전까지 사전 신청, 숙박비 결제 금액의 30%·최대 5만원까지 할인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에게 숙박비를 할인 지원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실 여행 숙박비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임실군 외에 주소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실군 내 지정 업소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 결제액의 일부를 할인해 준다.

할인 혜택은 숙박비 결제 금액의 30%이며, 최대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관외 거주 관광객이 지정된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인 방법은 지정 숙박업소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숙박일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서를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임실방문의 해TF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실군을 방문해 관내 소재 식당, 유료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에게 숙박비를 할인 지원 한다.

관광지 및 제품 결제 영수증과 숙박 당일 결제 영수증을 숙박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는 현재 11개소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심 민 군수는 “체류형 관광객들이 임실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강화

3월 중순까지 보건의료원 방문 전담 인력 및 방문 간호사보건진료소 연계 서비스 진행

무주군이 지속되는 한파 속에서 홀몸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으로, 보건의료원 방문 전담 인력을 비롯한 읍면 방문 간호사, 보건진료소가 연계해 전화 및 문자 상담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진행한다.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건강취약계층 96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 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투약 및 영양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체중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교육도 진행한다.

또 올바른 생활 습관 및 실내 환경(보온 및 적정 습도 유지 등), 실외 생활 건강 수칙(옷차림 등) 등도 전달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한파주의보 및 특보 발령 시 대처 방법 등의 정보는 각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전달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박인자 과장은 “올겨울 유난히 눈도 자주 내리고 추워서 건강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방문 간호사가 직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 상담부터 만성질환 관리,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체감도나 만족도도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체기능 저하로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가벼운 실내운동을 비롯한 ▲적절한 수분 섭취 및 균형 잡힌 식사 ▲실내 보온과 적정 습도 유지 ▲실내 환기 등을 강조했으며 실외에서는 ▲따뜻한 옷과 모자 착용 ▲무리한 운동 삼가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급격한 외부 온도 하강 시 야외활동 자제 등도 명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현재 경로당 등 노인시설 59곳과 마을회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등 164곳의 한파 쉼터가 운영 중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프로그램 사전 모집

내달 8일~9일 운일암반일암 일원서 개최...28일까지 선착순 모집

진안군이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운일암반일암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프로그램 참가자를 순차적으로 사전 모집한다.

참가 모집 중인 프로그램은 ‘출발! 고로쇠 숲 탐험대’로 고로쇠 수액 채취 체험, 숲 놀이, 친환경 만들기 등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해마다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축제위원회는 전년도에 이를 동안 4회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올해는 6회로 확대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진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신청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고로쇠 물을 활용한 고추장 만들기 체험(현장 접수) 등 고로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먹거리 등으로 풍성한 축제장이 구성돼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남귀현 축제위원장은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게 됐으며 좋은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양파 포장 관리 당부...병해충 발생 우려

장수군이 월동 후 평년 대비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일조량이 부족해 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양파 포장 관리를 당부했다.

군은 기상청의 1개월 전망자료 및 양파 실증포장 생육상황 분석 결과, 올해 생육재생기는 평년과 유사한 오는 24일로 판단되며 다수확과 품질 향상을 위해 월동 후 포장 관리와 적기의 웃거름 시용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배수가 불량한 포장은 생육재생기에 맞춰 식물체 뿌리가 원활하게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물길을 정비하고 잡초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온용으로 덮여둔 부직포는 일시에 제거하지 말고 중간중간 비닐을 조금씩 찢어 급격한 저온 노출을 방



지해야 한다.

웃거름은 생육상황을 고려해 2월 중·하순부터 비가 오기 전 두 차례에 나누어 시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마늘과 양파의 생육이 과도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비료량을 약간 줄이

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훈식 군수는 “양파는 생육재생기 이후 대치가 생선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동 후 철저한 생육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국제대회서 메달 석권 2025 ASC 방콕 아시안라이플컵 25m 권총 단체전 1위 등 활약

임실군청 사격팀(백정현, 황성은, 이시윤 선수)이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쾌거를 거뒀다. 2025 ASC 방콕 아시안 라이플컵은 임실군청 사격팀이 올해 첫 출전한 대회로, 선수들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는 지난 9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렸으며, 본격적인 경기는 11일부터 시작됐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10m 공기권총과 25m 권총 종목에 출전해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는 총 1,705점을 기록

하며 3위를 차지했다.

또한 25m 권총 종목 단체전에서는 총 1,734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개인전에서는 이시윤 선수가 본선 3위로 결선에 진출한 후 32점을 기록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청 사격팀이 국제무대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명예를 빛내주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 ‘도농 상생형일자리 사업’ 홍보 만전

진안군일자리센터가 진안군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전북 농식품 도농 상생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 내 유류 인력을 발굴하고 알선해, 농가와 도시 간의 상생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농가에 인력 연계를 제공하며, 중식비, 간식비, 근로자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사업 운영에 대해 물라서 참

여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다양한 현장에 이동 상담소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혜택을 알리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안군일자리센터 최영규 센터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환경오염 예방 앞장...국번 없이 128로 신고

임실군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128) 홍보를 확대 강화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장 매연, 쓰레기 불법소각,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오염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되고, 신고 내용 확인 후 행정처분 등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

급할 예정이다.

2024년 유형별로는 공장이나 자동차의 매연 등 대기오염 신고가 5건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고, 쓰레기 투기 등 폐기물 55건, 생활악취 44건, 그 밖에 생활 불편 민원이 1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접수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비교적 경미한 51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해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설천면생활개선회·착한가게 55호점, 나눔동참

설천면생활개선회, 50만원·BHC무주태권도원점, 매출액 일부 기부

무주군 설천면생활개선회(회장 현미숙) 회원들이 지난 18일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현미숙 회장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은 정성”이라며 “회원들 모두 농촌지역을 이끄는 리더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설천면 지역에 착한가게 55호점이 탄생했다. 지난 13일 착한가게 현판을 건 BHC무주태권도원점은 앞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기로 했다.

BHC무주태권도원점 강복실 대표는 “함께 할수록 주변이 더 밝아지고 이웃들

/무주=최희호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in 군산'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in 군산>이 내달 13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섬세하고 정확한 곡 해석로 관객을 압도하는 상임지휘자 이명근의 지휘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을 연주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1회 정기연주회는 전석 유료 5,000원으로 만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연주회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063-454-555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인재 육성 장학금 기부행렬... 훈훈한 봄이 온 임실

올사년 푸른 댐의 기운이 생동하듯 끊임없는 기부행렬에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는 지역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열정으로 만연한 봄이 벌써 찾아온 듯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지난 17일 임실군청을 방문한 임실읍 두만리 김성권-이난희 부부가 100만원, 열매의고장임실 4H유통연구회(회장 김승곤)가 300만원, 오수면 한성상회 이용철 씨가 100만원을 애향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임실읍 두만리 김성권-이난희 부부는 부부의 뜻을 모아 매해 장학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벌써 10년을 맞이하여 누적 기부액이 올해 1천만원을 넘어섰다.

열매의고장임실 4H유통연구회 김승곤 회장은 "임실보훈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운영과 애향 장학금 지원 등 임실군의 장학·교육지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오수면에서 한성상회를 운영 중인 이용철 씨도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용철 씨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의 손길을 보냈다.

/임실=한병열 기자

더담우, 도내 취약계층 한우보신 세트 기탁

2,000세트 3천만 원 상당...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프리미엄 한우 가공식품 전문기업 더담우(대표 이동규)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우보신세트 2,000세트(3천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이동규 더담우 대표, 양효경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이 참석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의미를 공유했다. 더담우는 2020년 법인 설립 이후 2023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



더담우(대표 이동규)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우보신세트 2,000세트(3천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터에 입주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기업으로, 전북산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된 한우보신세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더담우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고창군 농축협·정읍시 농축협, 4천만 원 상호기부

정읍시청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지역간 상생협력 강화

고창군 농축협과 정읍시 농축협 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일 정읍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했다.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에는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 고창지역 6개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 정읍시 8개 농축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와 고창 6개 농축협은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원을 기부했다.

허수종 정읍시조합운영협의회 의장은 "상호기부를 통해 고창과 정읍의 상생협력과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상호 기탁해 주신 고창군과 정읍시 조합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농축협과 정읍시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17일 정읍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했다



미용사박정순씨, 진안군마령면어른신미용봉사

지난 17일 진안군 마령면에서는 2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발에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마을 주민 전 모씨는 "깔끔하게 잘린 머리를 보니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박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정순 씨는 "해맑게 웃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봉사의 보람도 느끼고, 마음까지 한결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는 2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발에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마을 주민 전 모씨는 "깔끔하게 잘린 머리를 보니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박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정순 씨는 "해맑게 웃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봉사의 보람도 느끼고, 마음까지 한결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시 금구면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수연·발전협의회(회장 권혁윤)와 홀플러스 김제점 나누미봉사단(단장 강한나),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이 협력해 지난 18일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약계층을 위해 홀플러스 김제점 나누미봉사단에서 연탄 1,000장을 후원해 난방 소의

계층 4세대에게 직접 연탄을 전달, 웃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추운 겨울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눠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금구면과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과일도시락 지원사업, 주민토달공예 등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시 남중동 '남중안함께라면'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끼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은희, 황의성)는 18일 '남중안함께라면' 개소식을 개최했다.

남중안함께라면은 고립·은둔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선화로33길 37에 조성됐다.

남중동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라면 조리기계 두 대를 설치했으며,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초로 특화사업을 통해 라면 무료 조리·나눔 공간을 운영한다. 특히 남중안함께라면 운영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과 개인사업자의 기부가 이어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유명카센터(대표 한선일)는 약 6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중안함께라면을 통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이용자 사후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무주군 복숭아 공선회, 장학금 554만 2천 원 기탁

무주군 복숭아 공선회 회원들이 지역인재 육성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공선회(회장 한상철)와 구천동공선회(회장 조지현)가 지난 17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554만 2천 원을 기탁했다.

한상철 회장과 조지현 회장은 "작년 여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출하 물량에서 1kg당 10~11원을 적립해 장학금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역과 인재 육성을 위해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은 만큼 학생들에게도 든든한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 복숭아 공선회는 적극적인 생육 관리, 물품, 농협 단위 공동선별 및 공동예산 실천을 원칙을 지키며 2021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그동안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한 금액은 1천3백여만 원에 이른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사과농장 송재관 씨 10kg 쌀 46포 기탁

장수군 장수읍에 이웃돕기 물품 기탁이 이어져 온정의 손길을 더하고 있다.

지난 17일 장수읍 두산마을에 거주하는 송재관씨는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써달라며 10kg 쌀 46포를 기탁했다.

송재관씨는 "고향인 장수에서 사과농사를 통해 소득을 얻고 즐겁게 살아가는 만큼 장수군이 보다 행복하고 살기 즐거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방법을 찾다가 기부를 선택하게 됐다"며 "최근 많은 눈과 강추위로 고생하시는 관내 소외계층 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하고 따뜻한 이웃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겨울철 난방비 절약 하는 방법

1. 보일러 외출로 틀어놓기



2. 보일러 틀 때 가습기 함께 사용하기



3.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하기



4. 난방 밸브 확인하기



〈一事一言〉



조사 연구하지 않은 자, 발언하지 말라(1)

유시민
작가

작가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라는 산문에서 글을 쓰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정치적 목적’이다. 오웰의 ‘정치적 목적’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정치적 목적’ 없이 쓰면 자신의 글이 엉망이 되곤 한다고 그는 말했다. 첫 책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부터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동물농장』을 거쳐 마지막 작품 『1984』까지, 그가 쓴 모든 글은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나는 오웰처럼 치열하게 살지는 않았다. 인간 존재의 심연을 탐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은 같다. 그가 언제나 옳은 견해를 말했던 건 아니다. 비평과 에세이와 소설 등 여러 장르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게 다 옳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웰의 글을 읽으면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겠는가.

오웰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다.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당시 독자들은 더 그랬을 것이다. 뛰어난 작가였다

는 증거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조지 오웰 동상 뒤의 사옥 외벽에 그가 냉소를 섞어서 했던 말을 새겨두었다. “자유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해 줄 권리를 의미한다.(If liberty means anything at all, it means the right to tell people, what they do not want to hear.)” 오웰은 그 말을 실천했다. 그가 철학적 정치적으로 옳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따지려면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난 번 칼럼에 이렇게 썼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제히 활동을 개시한 민주당의 자칭 타칭 대선주자들은 22대 총선의 ‘반명’ 정치인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많이, 크게, 좋게 보도해 준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방해 온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배격한다. 그런 언론의 보도를 정치적 독극물로 여긴다.” 또 김경수·김부겸·임종석·김두관·김동연 등을 거명했다. 민주당이 아니라 그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87년 창당한 평화민주당을 계승한다. 지금처럼 안정되고 강력하고 훌륭한 민주당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지난 번 칼럼에 대해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줄이라도 보도한 언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매북쇼>에서 같은 이

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더니 달라졌다. 신문 방송이 제법 보도했다. 하지만 내 말의 취지와 맥락을 제대로 다룬 보도는 거의 없었다. 다들 전후 맥락을 제거하고 ‘비명’ 정치인을 인신공격한 것처럼 보도했다. 여러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몰하는 평론가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공격했다.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과 당직자들도 야당 패널로 방송에 나와서 나를 이재명의 하수인으로 격하했다. 내 비평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말한 이도 없지는 않았지만 극히 드물었다. 김부겸·김경수 두 정치인이 나쁜 의견을 밝혔지만 내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정치비평은 내가 쓰는 여러 장르의 글 중 하나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을 쓰고 <뉴스공장>과 <매북쇼> 등에서 말로 비평한다. 가끔 <MBC>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 말고는 신문 인터뷰를 하지 않고 방송 출연도 삼간다. 말로 하든 글로 쓰든 비평은 똑같은 비평이다.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벌어진 정파 대립과 경쟁을 언론 현실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해설했다.

비평도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평론가는 자신이 한 비평에 대해 ‘지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평론가로서 다른 평론가들이 내 비평을 정확하고 매섭게 비평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처럼,

실제로 한 것과 다른 말을 한 것처럼 왜곡 비평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못 본 척하지만 누가 어떻게 내 주장을 왜곡하는지 잘 안다. 내가 했던 민주당 비평의 요지를 다시 말하겠다. 내 비평을 비평하는 정치인과 평론가와 기자들은 읽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비평을 통해 내 견해를 알게 되는 독자들을 위해 분명하게 정리하겠다.

“조사 연구하지 않은 자는 발언하지 말라.” 마오쩌둥이 한 말이다. 공산당 말을 인용한다고 타박하지 말라. 공산당도 이 정도는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인용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게 기본이다. 기본조차 하지 않는 기자를 저널리스트라 할 수는 없다. 그런 평론가를 평론가라 할 수도 없다. 그런 정치인을 정치인이라 하기는 싫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공산당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거듭나라

전북자치도가 구 자립복지재단의 청산을 마무리하고 해당 부지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폐쇄되었던 시설이 이제는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북도는 총 900억 원을 투입, 2027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운동재활, 인지·심리안정, 의사소통 지원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 체험 및 일상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체험휴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27년에 개원할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과 장애인 직업중점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은 291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 재할기금을 활용해 장애인과 고용주를 위한 전문 교육과 연수 공간을 조성하며 장애인 직업중점 특수학교는 380억원을 투입해 18개 학급을 운영하는 직업 중심 특수학교로 설립된다.

이러한 교육과 고용 지원이 결합된 체

계적인 접근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가 추진해 27년에 개원할 예정인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은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과 기업 연계를 위한 종합 시설로, 총 157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운영 방식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각 시설이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 자립원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였다. 이제는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는 특정 집단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장애인 복합커뮤니티타운 조성 사업이 장애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 국가의 모습이다. 전북자치도의 이 같은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노성당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교육기관, 향교
-지정일- 1990년 6월 30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22번지

▲오늘의시

봄 /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쯤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겨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시인 약력 : 1942년 광주광역시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뿌리깊은 나무’ 편집주간으로 일했다.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바람’과 1961년 현대문학에 시 ‘소모의 밤’ ‘백주’로 2회 추천받았으며, 1962년 ‘열차’가 추천돼 등단했다. 1967년 시 ‘우리들의 양식’이 동아일보 신

춘문예에 당선됐다. 1969년, 첫 시집 ‘이성부 시집’으로 제15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대산문학상(2001), 제1회 가천환경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도민을 위한 신문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관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소중히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JBT

전북도민을 위한 신문

광고문의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0

구독신청 063)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2036년 전북 올림픽 유치 염원 담은 '태권유랑단 녹두' 성황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며 기획된 역사 판타지 공연 '태권유랑단 녹두'가 3회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공동 기획한 작품으로, 태권도와 동학, 전통음악을 결합해 문화 올림픽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태권도의 정신(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과 동학이 강조하는 인간 존중 사상을 표현한 창작

극으로, 올림픽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 5회 공연 중 현재까지 3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남은 2회 역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죽 단위 관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몰리면서 공연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공연장을 찾은 한 관객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며 추가 공연 요청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엔딩 5막에

서는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된 촛불을 들고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감동을 더했다. 또한, 대형 올림픽 유치 염원 휘장이 무대에 펼쳐지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세계 평화와 하나 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은 동학정신과 태권도의 성지인 전북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꽃피는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과 끝까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더불어 함께 하는 밝은 미래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타임스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正論直筆